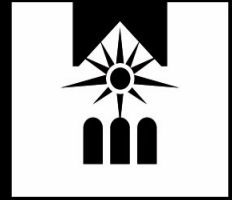




EPIPHANY

CATHOLIC CHURCH

In your neighborhood. In your life.



MASS SCHEDULE

Saturday Vigil

5:00 pm

Sunday

7:30 am

9:00 am (Korean)

10:30 am

12:00 pm (Lithuanian)

Last Sunday of the Month

Monday - Friday

7:30 am

Holy Days of Obligation

7:30 am & 7:00 pm

Confessions

Monday - Friday

8:00 - 8:30 am

Saturday

4:00 - 4:30 pm

Eucharistic Adoration

**Currently suspended.*

Wednesday

5:30 - 6:30 pm

THE ASSUMPT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

August 15, 2021

Rev. Stefan Megyery

Administrator

SACRAMENTS & PARISH SERVICES

Infant Baptisms

Please visit the parish website to register online, or contact the parish office.

Marriage

Please call at least six months prior to the anticipated wedding date. Parish registration, marriage preparation, and instruction are required.

Sick Calls

Please call if any parishioners are in need of the Sacrament of the Sick.

Religious Education (CCD) for Children

For those preparing for First Holy Communion.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Rite of Christian Initiation for Adults (RCIA)

For those who would like to join the Catholic Church.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Adult Confirmation

For Catholics who have not received the Sacrament of Confirmation.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Parish Membership

New parishioners may register online by visiting the parish website.

Contact

2712 Dumbarton Street, NW

Washington, D.C. 20007

(202) 965-1610

epiphanygeorgetown@gmail.com

www.georgetownepiphany.org

The parish office is closed every Monday and Friday.

**MEDITATION
ON TODAY'S READINGS
The Assumpt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

Blessed are you who believed. (Luke 1:45)

When the angel Gabriel told Mary that she was to have a son, she asked, “How can this be?” (Luke 1:34). But the angel assured her that it would happen through the Holy Spirit, and Mary believed him. That’s why, in today’s Gospel for the feast of the Assumption, Elizabeth calls Mary “blessed”—because she believed (1:45).

A virgin birth is not the only truth of our faith that defies a natural explanation. We might also wonder how Jesus was fully God and fully man, or how, after lying in his grave for three days, he rose from the dead. But while we don’t know the how, we do know the why: so that our loving God could save us from sin and death.

Mary’s bodily assumption into heaven is another truth that can’t be explained on a natural level. Again, we don’t know *how* it happened, but we do know why. By saying yes to the angel’s request, Mary gave birth to the Savior of the world. Because of this yes, she played a central role in our salvation. And so God greatly honored her by allowing her to share fully in the fruit of Jesus’ victory over sin and death even now, before he comes again in glory.

One day we too hope to share in Christ’s victory. At his Second Coming, the corruptible will become incorruptible (1 Corinthians 15:54). Our bodies will be brought to life again as spiritual bodies, and we will see Mary in all her beauty and splendor.

We don’t know how this will happen. But that’s where faith comes in. As Elizabeth said to Mary, *Blessed are those who believe.* We are truly blessed when we choose to believe that all of God’s promises will be fulfilled. And when we struggle to believe, we only have to turn to Mary, our Mother. She is always eager to intercede for us and lead us into the loving arms of her Son, Jesus.

“Mary, Mother of God, pray for us.”

Revelation 11:19; 12:1-6, 10

Psalm 45:10-12, 16

1 Corinthians 15:20-27

The WORD Among Us

**POPE FRANCIS’ INTENTION FOR
EVANGELIZATION FOR AUGUST:**

The Church



Let us pray for the Church, that She may receive from the Holy Spirit the grace and strength to reform Herself in the light of the Gospel.

**EPIPHANY CATHOLIC CHURCH
MEMORIAL GARDEN FUNDRAISER**



Epiphany Catholic Church is selling commemorative, laser-engraved bricks, which will form a **Memorial Garden** in the front yard of the rectory before the statue of the Blessed Mother. Each 4”x8” brick can accommodate 3 lines of English, Korean, or Lithuanian text, limited to 18 characters per line (including spaces and punctuation). Bricks are only available for purchase on our website. (Go to www.georgetownepiphany.org. The purchase form is located under the “Events & News” tab. Payment is by electronic check – no credit cards.) The prices are 1 brick for \$300 or 2 bricks for \$500. Please consider making a generous donation in memory of someone important in your life. Order yours today!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August 14 Vigil	5:00 p.m. Special Intention
Sunday, August 15 THE ASSUMPT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	7:30 a.m. Special Intention 9:00 a.m. Korean Mass 10:30 a.m. Special Intention
Monday, August 16 St. Stephen of Hungary	7:30 a.m. Natalia Duane
Tuesday, August 17	7:30 a.m. Special Intention
Wednesday, August 18	7:30 a.m. June Walsh
Thursday, August 19 St. John Eudes	7:30 a.m. Special Intention
Friday, August 20 St. Bernard of Clairvaux	7:30 a.m. † Bernard Sadowski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259 (1절)	성체성가	198
봉헌성가	512	마침성가	259 (2절)
제1독서 요한 묵시록 11,19ㄱ; 12,1-6ㄱㄴ.10ㄱㄴㄷ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	
화답송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복음 루카 1,39-56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습니다. (1.49).	
제2독서 코린토 1서 15,20-27ㄱ			

◎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초중고 주일학교
 교리는 9월에 개강합니다. 주일학교 교리교사에 관심있는 봉사자는 Koreanmadonna@hotmail.com (마르티나 수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인 예비자 교리** 2021-2022년 예비자 교리
 리는 9월부터 시작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예비자 교리반에 초대합니다. 견진 성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쉬고 있는 신자들을 초대하셔서 재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Memorial Garden** 본당 성모상 주변에 조성
 할 “기념 정원” 신청 받습니다. 기념 정원 벽돌은 (크기는 4”×8”) 한글이나 영어로 세줄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한줄에 띄어쓰기와 부호를 포함 18자). 벽돌 하나의 가격은 \$300이고, 2개는 \$500입니다. 기념 정원 신청은 본당 웹사이트(www.georgetownepiphany.org)에서만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헌금 봉헌** 자동이체 헌금 봉헌 방식
 은 은행과 연결하여 매달 혹은 매주일 자동이체되는 것입니다. 성당 웹사이트(https://www.georgetownepiphany.org/)에 “Online Giving”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황님의 8월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 교회
 성령께서 교회에 은총과 힘을 베풀어 주시어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모 성심께 바치는 봉헌 기도]

- 어지신 어머니, 든든한 힘이신 동정녀, 하늘의 모후요 죄인의 피신처이신 성모님,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저희를 봉헌하나이다.
- 저희 자신과 가진 것을 모두 바치며 온전한 사랑으로 저희 가정과 조국을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저희 몸과 마음을 바치오니 저희 안에 있는 것, 저희 주위에 있는 것 모두 성모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오로지 성모님 사랑의 한뼘을 나누어 주소서.
- 성모님, 이 봉헌대로 살고자 저희는 세례 때와 첫영성체 때에 한 서약을 오늘 다시 새롭게 하나이다.
- 저희는 신앙의 진리를 언제나 용감히 고백하며 교황과 그와 결합되어 있는 주교들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하느님의 계명과 교회의 법규를 충실히 지키며 특별히 주일을 거룩히 지내고 열심히 살아가며 자주 영성체할 것을 약속하나이다.
- 하느님의 영광 지극하신 어머니, 인류의 어지신 어머니, 온 마음을 바쳐 어머니를 공경하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저희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저희 조국과 온 세계에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의 나라를 하루바삐 세우도록 충실히 노력할 것을 약속하나이다.
- ◎ 아멘.



[성모 승천] 축일 8월 15일

1. **의의** : 이는 마리아가 지상 생활을 마친 다음 육신과 영혼이 함께 천상의 영광에 들어 올려지심을 말한다. 이는 하늘로 올림을 받으신 피승천(被昇天)이다. 교회가 마리아를 공경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종신도록 동정하시고, 원죄 없이 잉태되셨고, 하늘에 올림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2. **교회의 선언** : 1950년 ‘가장 풍부하신 하느님 (Munificentissimus Deus)’이라는 회칙을 통해, 교황 비오 12세는 성모 승천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2차 바티칸 공의회는 “티 없이 깨끗한 동정녀께서 조금도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으며, 지상 생활을 마친 후, 영혼과 육신이 천상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으시어, 주님으로부터 천상 천하의 모후로 추대를 받으셨다”고 선언하였다.
3. **승천의 확산** : 교회는 “마리아는 다스리는 자들의 주님이시며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자이신 당신의 아드님을 더욱 완전히 닮게 되었다”(교회 헌장 59항)고 선언하였다. 초세기부터 신자들은 마리아의 육신은 흠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하늘에 불러 올림을 받으셨음을 확산하고 있었다.

그것은 기도, 강론, 신심 행위, 서적 등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성당, 수도 단체, 도시, 국가 등을 승천의 이름으로 그분께 바치거나 축복하기도 하였다. 물론 성모 승천은 그리스도 시대부터 교회에 의해서 밝혀지고 선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죄 없는 잉태, 영원한 동정성,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의 완전함과 친밀한 관계는 승천을 확산케 한다. 또한 성서에는 확실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마리아는 성경에서 예수의 어머니로 불린다. 그리고 마리아의 아드님은 하느님이시며 마리아는 그분의 어머니이다.

또한 어머니 마리아와 아들 예수님과도 긴밀히 결합된 분이시다. 따라서 성서 전체를 숙고해 볼 때, 마리아는 확실히 당신의 아드님을 따라 지상에서 천국에 이르심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마리아의 승천을 확산케 한다(1코린 15장; 루카 1장; 묵시 12장). 4세기 중반에 마리아의 죽음과 승천이 기념일로 받아들여졌고, 7세기에는 동방에서, 그리고 8세기에는 서방에서 마리아의 승천 축일을 지냈다.

는 예루살렘의 주교인 성 마카리우스(Macarius, 3월 10일)에게 주고, 남은 부분은 로마로 가져왔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성녀 헬레나의 상자는 십자가이며, 이콘에서 십자형의 십자가를 들고 있는 성인은 오직 헬레나뿐이다. 교회 미술에서도 그녀는 보통 왕관, 성당 모형, 십자가, 못과 함께 등장한다. 성녀 헬레나는 330년 8월 18일 오늘날 터키의 이즈미트(Izmit)인 니코메디아(Nicomedia)에서 사망하여 라비카나 가도(Via Labicana)의 화려한 무덤에 모셔졌다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 사도 교회의 황실 납골당에 안치되었다. 동방교회에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함께 5월 21일에 축일을 기념하고 있다.

[성녀 헬레나] 축일 8월 18일

콘스탄티누스 대제(Constantinus I)의 어머니인 성녀 헬레나(Helena)는 250년경 소아시아 북서부 비티니아(Bithynia) 지방의 드레파눔(Drepanum)에서 태어났다. 성 암브로시우스(Ambrosius)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여관 주인의 딸이었다. 그녀는 270년경에 후에 황제가 된 로마의 장군 콘스탄티우스 1세(Constantius I)를 만나 현격한 신분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였다. 그들은 280년경 나이수스(Naissus)에서 외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콘스탄티누스이다. 하지만 콘스탄티우스 1세는 289년에 정치적인 이유로 성녀 헬레나와 이혼하고, 그리스도교 박해자 중 한 명인 막시미아누스 황제의 의붓딸인 테오도라(Theodora)와 결혼하여 292년에 황제 휘하의 카이사르(Caesar)가 되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성녀 헬레나는 당시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교에 대해 알게 되었다.

306년 콘스탄티우스 1세가 오늘날 영국의 요크(York)에서 죽자 아들인 콘스탄티누스가 아버지를 이어 황제가 되었다. 그는 어머니를 황궁이 있는 독일의 트리어(Trier)로 모셔와 그녀를 ‘아우구스타’(Augusta), 즉 황후라 부르도록 하고 그녀의 초상이 새겨진 동전을 주조하였다. 312년 10월 12일 ‘밀비오(Milvio) 다리 전투’에서 막센티우스를 격파하고 승리한 콘스탄티누스는 로마로 입성하였다. 그리고 60세가 넘은 어머니 헬레나를 설득해 세례를 받도록 했다. 성녀 헬레나는 개종한 순간부터 신앙생활에 전념했고, 그리스도교가 널리 전파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녀의 노력에 힘입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313년 ‘밀라노(Milano) 칙령’을 반포하여 로마제국 내에서 그리스도교를 인정하고, 투옥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를 석방하며 빼앗은 교회 재산을 반환하였다.

326년 총애하던 말손자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두 번째 부인을 잃는 가족의 비극을 겪은 후 성녀 헬레나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티나로 순례를 떠났다. 에우세비우스(Eusebius)에 의하면, 그녀는 ‘왕 중의 왕’이신 하느님께 충성과 신앙을 바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녀는 막대한 후원금을 내놓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선행에 헌신하며, 그리스도교의 일을 돕는 데 적극적이었다. 특히 구세주의 발자취에 대한 경배를 표하기 위해 아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지 곳곳에 수많은 성당을 세웠다. 대표적으로 베들레헴의 ‘주님 탄생 기념 성당’과 올리브 산의 ‘주님의 기도 성당’을 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루살렘의 골고타 언덕에 ‘주님 무덤 성당’(성묘 성당, Sacrum Sepulchrum)을 건립했다.

루피노(T. Rufinus, 345-410년)가 전해주는 전설 같은 이야기에 따르면, 주님 무덤 성당을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한 십자가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무수히 많은 십자가가 발굴되자 성녀 헬레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기 위해 한 젊은이의 시체를 모든 십자가 위에 올려놓게 했는데, 그때 한 십자가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 젊은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를 발견한 성녀 헬레나는 이를 셋으로 나눠, 하나는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에 있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에게 보내고, 하나